



교육신문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전문지입니다

이달의 지면

- 02 교육대학원 소식
- 03 교육대학원 소식
- 04 교육학술시리즈
- 05 기획
- 06 교육이슈
- 07 교육계 소식
- 08 교육마당

학사일정

7월

- 24일(월) 여름계절제 개강(전반기:24-8.1, 후반기:8.2-10)
- 24일(월)~26일(수) 여름계절제 수강신청 정정기간
- 24일(월)~26일(수) 제1학기 종합시험 접수(계)
- 24일(월)~28일(금) 논문지도교수 신청(4학기생) 및 변경(계)

8월

- 10일(목) 여름계절제 종강(계)
 - 11일(금) 제1학기 종합시험(예정)
 - 18일(금)~25일(금) 2006학년도 2학기 등록
 - 21일(월)~25일(금) 제2학기 수강신청 기간(야)
- ※학사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독회원 등록

교육신문을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 바랍니다
 전 화 : 02-3290-1690
 팩 스 : 02-923-4540
 e메일 : edunews@korea.ac.kr

발행인 이남호
 주 간 류태호
 발행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창 간 1971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안암동 5가
 E-mail edunews@korea.ac.kr
 Tel 02-3290-1690
 Fax 02-923-4540



교육신문

2006년 7월 5일(수)

The Korea University Education Monthly

제 328 호(월간)

Focus 인터뷰

최고를 향하는 국내 최초의 대학박물관

문화복합센터로서의 박물관으로 변화 시도!

평생교육사회의 박물관은 정보제공과 문화의 공간을 넘어 서 평생교육의 기능까지 함께 하는 에듀-인포테인먼트센터(edu-info-tainment-center)로서 새로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최초의 대학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가고 있는 본교 박물관에서, 최광식 관장을 만났다.

전시는 기본이다

본교 박물관은 계절마다 특별전을 갖는다. 올해 9월은 문과대 60주년을 맞아 그 역사에 대한 특별전을 갖는다. 10월에는 한·불 수교 120주년을 기념해 당시 한국에서 거주했던 프랑스인들의 자취들을 모아 전시하는 흥미로운 전시를 계획 중이다. 내년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 교수가 4백여 점의 기증해 교우회 100주년특별전 등을 연다.

문화복합센터로 도약하다

1934년 도서관내에 설립된 고대박물관은, 1961년 독립 공간을 갖게 됐으며 올해 100주년기념관내로 옮겼다.

우리 대학박물관은 주말에도 개방하는 등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기능을 활성화해 학교의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된다. 더욱이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박물관은 단순하고 고리타분한 장소가 아닌, 살아있고 함께 느끼는 문화 복합센터로서의 모습을 갖추도록 준비하고 있다.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다

전시에서 교육중심으로 프로그램의 비중도 높이고 있다. 학교현장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

최 광 식 관장

- 본교 박물관 관장
- 본교 한국사학과 교수
- 前 고구려연구재단 상임이사

해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에게 풍부하고 유익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연령별 교육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가장 인기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은 3개월짜리 '내가 만드는 박물관'과 '우리 동네 박물관'이다. '내가 만드는 박물관'은 초등생 대상 주말과정으로, 소장유물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며 감수성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 동네 박물관'은 소외계층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이다.

청소년프로그램인 'KUM 탐사대'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년 2회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강좌도 내실있게 운영된다.

디지털을 만나다

소장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전시하지 못한 소장품과, 학문적 가치는 있으나 전시가 힘든 유물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계획 중이다. 사이버 박물관과 같은 형태

로 서비스를 제공해 제3의 도약을 꿈꾼다.

세계를 만나다

본교 박물관의 수준 있는 소장품으로 기획된 몇 차례의 해외전시는 우리나라의 작품과 역사를 알리고, 또한 고려대의 명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지난 1996-97년의 미국에서의 전시는, 원래 미국 4개 대학박물관에서만 전시가 계획돼 있었는데, 뉴욕타임즈에 알려지면서 6개 대학박물관으로 늘어났고, 수준높은 전시로 찬사를 받았다.

해외 전시기간 동안의 경험은 새 박물관 설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듯 해외전시는 우리 박물관을 널리 알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안목을 높이는 유익한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 일본에서의 전시에 이어 올해는 그리스와의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사람과 함께 하다

박물관은 사람이 머물러야 의미가 있는 곳이다. 대중의 호응이 필요하다. 우리 박물관은 사람이 있는 생동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교우들의 박물관 이용을 적극 이끌어 내기 위한 한 방편으로 교직원 자녀를 위한 체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상당히 큰 호응을 얻어, 이후 계속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변 지역 문화원과 공동으로 연계하여 전시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교육대학원 원우 및 교우도 본교 박물관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라며 활발한 이용을 기대한다. 가치 있는 작품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점을 잊지 말고 편하고 친숙하게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장소로 이용되길 바란다.

이제 박물관은 미술품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는 미래지향적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담/이강진, 송용관

2006년 서예최고위과정 3기 모집

- 모집인원: 00명
- 지원자격: 서예분야 지도자급 인사
- 지원절차
가. 원서교부 및 접수: 2006년 7월1일부터 2006년 8월20일까지
나. 교부 및 접수장소: 본 대학원 학사지원부
- 수강안내
가. 교육기간: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나. 강의시간: 매주 화요일 18:30~21:30
다. 장소: 본 대학원 최고위과정실
- 문의: 본 대학원 학사지원부 T.02)3290-1370
- 최고위과정 예우
가. 수료자에 고려대 총장 명의 이수증 수여
나. 배우자를 위한 교양강좌 실시
다. 특별강좌 및 세미나 실시
라. 서예전문가 자격증 수여
마. 고대병원 및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
바. 고대 연구시설, 도서 및 자료 이용
사. 고려대 교우회 정회원 자격 부여



지리교육 학술 시리즈 ②

교과 교실수업연구의 동향: 양적 수업연구에서 실천적 지식으로

서태열

본교 지리교육과 교수

1. 들어가면서

교과교사로서 지리교사는 교육의 실행과정으로서 교육과정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항상 던져야 한다. 어떤 종류의 지리가 학생들에게 적절한가, 어떤 목적과 목표가 학생들과 공유되어야 하는가, 어떤 스타일의 교수와 학습이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는데 적절한가, 어떤 종류의 평가와 평정이 적절한가, 어떻게 지속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재평가와 개발을 보장할 수 있는가와 같은 것들이다.

국가수준의 문서화된 교육과정이 투입되어 실제의 교실수준에서의 실행되는 것이 지리교실수업이기 때문에, 지리교실수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지리수업이 전개되는 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또 학교의 교육은 교과의 교실수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실수업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교실수업에 대한 연구는 교실수업연구자에게 자신의 인식론적, 방법론적 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유도함으로써 교실수업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수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실증적인 정량적 연구를 중심으로 수업의 효과성에 주목하여, 교실수업을 하나의 총체적인 현상으로 보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종래의 교과수업연구들을 보면,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교실수업연구를 하나의 연구영역이나 주제범주로 보고 체계화된 내용체계와 연구방법에 대한 모색은 매우 부족하였다. 특히 이러한 연구를 교실수업연구라 하는 틀을 통해 검토하는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의 연구방향이나 연구방법론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부족하였다. 이는 지리과에서 교실수업연구란 무엇이며, 어떤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연구방법을 적용하는지 등을 고려하는 풍토가 조성되지 못한 탓이다.

2. 교실수업연구와 교사에 대한 연구

교실수업에서 교사는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교실수업에 대한 연구에서 교사에 대한 연구는 많은 관심을 받아왔으며, 수업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이러한 교사에 대한 연구의 초기연구는 교사특성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교사의 성격이나 가치관, 지식수준 등과 학생들의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Gage는 교수에 대한 연구에서 교사의 특성, 행위를 적어도 하나의 변수로 간

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사특성에 관한 연구는 수업연구 패러다임으로 보면 일종의 과정-산출 연구(Process-Product Research)의 하나로서 실행이 되었는데, 주된 목적은 효과적인 학생의 학업성취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교사와 효과적인 수업 행동을 추출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사 특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사 특성이 학생들의 성취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었는데, 교사의 특성 그 자체가 학생들의 성취에 효과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교실수업에서 교사에 대한 연구는 교사행동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로 나아간다. 즉 교사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칭찬하기, 질문하기, 학습기회 부여하기와 같은 교사의 교수행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으려는 과정-산출연구에서 고려한 것들은 실제 상황을 하나의 변인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연구로서는 교사의 의도나 신념, 그리고 교사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무시되고, 심지어는 실질적인 교실상황마저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들이 노출되었다. 이것이 과정-산출연구를 통한 효율적 교수행동에 대한 연구의 한계였으며, 교사의 신념과 행위, 행

동에 대한 재고려가 요구되었다(김혜숙, 2005).

무엇보다도 교실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수행동에 대한 보다 확대된 고찰이 요구되었고, 보다 체계적으로 교수행동의 여러 가지 요소들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3.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관심

이처럼 수업에서의 교사의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것이다. 이는 교사의 교실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경험과 상황에 따른 상황적 지식, 교사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른 행위를 통한 실행적 지식 등에 따른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즉 교사는 자신의 특별한 실천적 지식을 통하여 수업과정을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배움과 가르침의 경험, 그리고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반성에 따라서 자신의 수업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해석이 있어야만 어떤 것이 좋은 수업이며, 바람직한 수업이 되는 지에 대한 설명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실천적 지식은 교사가 가르치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학교와 사회 및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복잡한 일련의 이해체계로, 교사 자신이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를 위하여 이론과 실천 사이를 부단히 오고가는 과



정 속에 새롭게 창조되는 암묵적이고 총체적이며, 지혜로운 활동인 메타프락시스(meta-praxis)이다(홍미화, 2006).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연구를 가장 정교하게 진행한 엘바즈(Elbaz)에 따르면, 교사들이 가르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복잡한 일련의 이해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실천적 지식의 내용, 구조, 그리고 정황을 밝힘으로써 교사의 수업활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른 교과수업과 마찬가지로 지리과 교실수업은 지리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교육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 내지 창으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지리수업에서 나타나는 어떤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지리교수-학습의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실수업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교사의 인성 및 개성에서부터 교수신념, 교수방법, 교수행동 등 여러 가지 차원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교육연장 노트

차기 리더 육성을 위한 Action Learning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윤형준

LG Philips LCD 경영교육팀 대리

기업이 어느 부서이건 궁극적인 사명은 비즈니스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다. HRD(인적자원개발) 부서도 예외는 아니며, 내가 맡고 있는 리더육성이라는 직무도 그렇다. '어떻게 리더들을 비즈니스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육성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우리 팀은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이라는 교육방식에서 해답을 찾았다. 기존의 리더육성 프로그램들은 '리더십'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액션러닝은 직무와 기능이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학습팀이 실제 비즈니스 이슈를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GE, Dupont 등의 세계 유수의 회사들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도 올해부터 차기 리더육성을 위해 액션러닝 방식을 도입하

여 진행 중이다.

여기에서는 올해 액션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며 느낀 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우선, 'HRD 부서가 이제는 말로만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진정한 비즈니스 파트너구나!' 하는 자긍심을 느꼈다. 액션러닝은 리더들에게 실제 비즈니스 이슈를 해결하도록 하는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얼마 전, 어떤 학습팀이 2개월간 노력하여 만들어 낸 과제 해결안을 부사장님께 보고 드리는 자리가 있었다. 부사장님은 매우 흡족해하시면서 그 해결안을 실제 문제 해결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기도 했고, 어떤 학습자는 '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변화시키는 혁신의 선봉에서 있으니 끝까지 힘내라'는 내용의 메일로 교육담당자를 격려하기도 했다.

'사람도 일도 성장(reflection)을 통하여 성장하는구나!' 하는 점을 느꼈다. 여타의 문제해결과 달리 액션러닝에서는 '성찰'을 문제의 해결만큼 중요하게 다룬다. 액션러닝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나면 항상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어떤 것을 배우고 느꼈으며, 향후에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정리하게 한다.

학습팀 내에서 성찰이 거듭되면서 학습팀 회의 방식도 점차 개선되고 학습자들은 효과적으로 기대결과를 산출할 수 있었다. 또한, 과제 해결에 실패한 학습팀 조차 액션러닝 방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사고가 확장되었다는 점을 회고하는 것을 보면서, 새삼 성인학습에 있어 깊이 숙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그러한 기회를 주는 '성찰'이 얼마나 위력을 가진 것인가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팀원을 다양하게 구

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초기에 학습팀이 구성된 이후, 팀원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에니어그램'이라는 성격유형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을 한 적이 있다. 공교롭게도 어느 팀은 팀원 7명 중에 3명이 의사결정이 빠르며 주도적인 성향이 있는, 8번(지도자) 유형으로 나타났다. 사공이 많다 보니 그 팀은 일주일 내내 화합하지 못하며 이미 의사결정한 내용도 자주 반복했다. 주도권 다툼을 하는 8번 유형 당사자들도 괴로웠겠지만, 그 팀에서 자신들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있는 다른 팀원들이 더욱 안쓰러웠다. 향후에는 서로 다른 부서에 있고 상이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루 섞일 수 있게 팀을 구성하는 것과 더불어, 사전에 개인적인 성격유형과 성향을 파악하여 최대의 다양한 사람들로 팀구성을 해야 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액션러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우리 HRD팀이 사명대로 '비즈니스 이슈 해결을 위해 해법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